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 編輯兼發行人 · 印刷人 金東成

社說
基督敎靑年會의 今日의 處地

一

基督敎의 傳播가 우리朝鮮에 잇서서 여러가지 點으로보아서 朝鮮民族을 啓發식힌것은 누구나 認定하지아니치못할 著大한 事實이다 基督敎徒들은 恒常朝鮮民族主義者들과 握手하야 民族的解放運動의 前線에서서 活動하여온것도 또한 事實이다 그럼으로 治者들은 佛敎를 擁護하야 隱然히 基督者排斥의 態度를 取하여온것도 事實이다 이와가티되여 基督敎徒들은 京鄕各處에 잇서서 여러가지 壓迫을 바더와섯다 普通學校에서는 生徒들의 敎會出入을 禁止하고 郡廳에서는 雇員들에게 經濟關係로써 壓迫하는 態度를 取하여온것도 事實이 잇섯다

二

그러나 朝鮮의 民族的解放運動이 政治的民主主義에만 立脚하지아니하고 더한層나아가서 經濟的民主主義에도 立脚하게되엿다 經濟的民主主義理論의 完成者는 그當時歐洲에 잇서서의 敎會의 弊害의 多大함을 보고 敎會를 攻擊하는 態度를 取하엿스며 또그理論自體內에도 基督敎의 敎訓과 相違되는 點이 잇섯다 즉 『칼·맑쓰』의 唯物史觀에 잇서서는 社會의 進化다는 것은 그 原因을 經濟的生活의 變動안에서 차저낼수잇다는것을 말하엿다 즉 사람의 心靈的方面보다 物質的方面을 더 重大視하엿섯다 그러나 基督敎는 발서 그前에 『코페르닉쓰』의 地動說과 『따윈』의 生物進化論에 依하야 大打擊을 바덧다고 생각하엿섯다 그러나 오늘날와서는 基督敎徒들도 地動說에 對하야는 疑惑을 가지는 사람이 업게되엿다 그런데 基督敎는 또 그대로 남어잇다 進化論에 關하야는 아즉도 論爭이 만히 잇서서 昨年에 米國에서는 어느學校에서 어느先生이 進化論을 講義하야 人類가 猿類로부터 進化發達되여왓다는 것을 말하엿섯는대 그것이 基督敎의 가르친바 즉 사람한쌍을 하나님이 만들엇다는것과 違反된다하야 大問題를 惹起하야 畢竟裁判所問題外지 되게되엿섯다

三

그러나 大多數의 基督敎徒들은 地動說과 進化論을 承認하면서도 하나님의 權威를 認定하고 그를 信仰할수잇는터이나 經濟的民主主義에 對하여도 基督敎徒들은 그러한 態度를 取할수잇는것이다 『칼·맑쓰』도 經濟的生活이 社會組織의 最下層 즉 基礎를 成하고 그우에 法律이며 哲學이며 藝術이며 宗敎가 發達된다는것을 말한바잇섯다 그러면 地動說, 進化論의 兩難關을 지나서 오늘날에 이른 基督敎에서는 새學說을 排斥하고 厭忌하는 態度를 取하지말고 自進하야 그를 硏究하야 敎自體를 新發見에 適應하도록 努力하는 것이 도로혀 最善의 方法일가 한다. 그러나, 無産階級의 새要求主張과 旣成宗敎가 果然合致되여나갈가 못할가하는 것은 매우 疑問이다

四

그러면 現今朝鮮에 잇서서 基督敎徒中의 活動的分子를 網羅하엿다고 볼수잇는 基督敎靑年會는 如何한 處地에 잇는가? 우리는 여러가지 事實을 綜合하여 생각하여보면 朝鮮의 現下狀態에 잇서서 基督敎靑年會가 얼픗하면 保守的處地에 잇게될가하는 것을 생각하지아니할수 업다 基督敎靑年會의 處地가 그와가티되면 自然히 달은 靑年團體와 勞働團體及思想團體들과 反目하게될것이니 그와가티되면 蚌鷸의 爭을 成하게되여 畢竟漁夫로하여금 利益을 獨占케하야 民族的立脚點으로보아서 不利한바이라고 생각하지아니할수업다 近者에 보이는 各地基督敎靑年會의 光景이 우리에게 朝鮮에 잇서서 基督敎靑年會 또는 基督敎靑年이 昔日의 活氣를 減하고 保守的狀態에 들어가려고하는바잇슴을 말하는것이 아닌가한다 이 엇지 基督敎靑年會의 一更新을 要할 時期가 아니랴?

山東戰機濃厚
山海關一帶는 奉、國兩軍의 戰場化

(北京十五日發) 山東及山海關方面의 戰機는 漸次切迫하야 近近兩戰線에 激戰이 開始되리라고 預期되는바 即山東方面의 李景林軍은 總司令部를 阜城에 置하고 德州를 中心으로하야 直隸省境에 兵을 進駐하는 中이며 山海關方面은 奉軍의 騎兵隊와 國民軍前衛間에 衝突이 잇섯더라

廣東兩派益紛糾
左傾派의 蔣介石氏는 ◇……自黨勢力增長에 努力

(東京電) 汕頭에잇던 蔣介石은 第二次全國代表會議出席을 爲하야 先月三十一日廣東에 向하엿는데 氏出還하기前에 國民黨幹部의 更迭을 行하야 左傾派의 勢力을 强히하고자 하엿슴으로 今後廣東의 左右兩派關係는 益益紛糾할 貌樣이더라

債務支拂猶豫案
關稅會議非公式會에서 ◇……日本政府가 提出

(北京十六日發) 每週一次式 和蘭公使館에서 開會되는 關稅會議非公式會合에서 日本은 中國의 債務『모라토리암』支拂猶豫의 修正案을 提出하엿는데 其要旨는 左와 如하더라

『三年間無償還』 其間의 利子를 四分하야 一九二九年으로부터 一九三二年外지를 七分으로하며 第一回의 償還은 一九二九年五千六百萬弗 爾後逐年增加하야 一九三二年六千四百萬弗로써 終할것이더라

佛特別議會休會
左黨은 修正案에 同意

(巴里十五日發) 佛蘭西下院特別會議는 十九日外지 休會가 되엿는데 右는 財政案에 對하야 妥協案을 得하기 爲함이라하며 左黨議員은 政府의 財案에 多少修正을 加하는것에 同意하엿다더라

加奈陀政府免危
◇……不信任案否決로

(오타와十五日發) 加奈陀下院은 反對黨首領『메이겐』氏의 提出한 政府不信任案을 五日間에 亘하야 討議하엿는데 本日遂히 百二十三票對百二十票란 近少한差로써 否決되엿다 그런데 萬一此不信任案이 可決되는 때에는 政局에 大變化를 招來하는것임으로 與黨도 反對黨도 非常한 緊張裡에 其結果를 待하고잇섯더라

日關稅改正案과
◇……鐵關稅引上問題

(東京電) 關稅改正案은 十八日의 臨時閣議에 上提할터임으로 鐵關稅에 關하야는 前者에 大藏省의 關稅率調查委員會에서 一旦決議하엿슴과 가티 期於히 引上을 主張할 貌樣이며 印度에서 綿絲布關稅를 創設할事는 審議할 問題가 아니라고 最近宣傳하여오지마는 그는 鐵關稅의 報復手段이 아니라고 片岡商相은 語하더라

明年度 新建築費內容
總額二百三十萬圓

新廳舍竣工에 伴하야 總督府는 豫算編成當初에 總督政務總監官邸新築費로 九十萬圓을 計上할 豫定이던바 財政多端인 此際인 故로 드듸여 此를 中止하기로하고 建築은 아마 十六年度가되리라는데 十五年度建築費豫算總額은 十四年度의 百九十萬圓에 比하야 四十萬圓의 增加로 二百三十萬圓을 計上함에 至하엿다 從來의 繼續事業으로는 京城大學의 五十萬圓 總督府新廳舍殘工事에 二十八萬圓이엇는바 新規에 屬할것으로는 一次議會에 外지通過하엿스나 關東大震災로 因하야 遂히 今日外지 延期된 京城三法院의 新築인바 此는 三法院을 一廳舍에 收容하야 近代式煉瓦三層을 建築할 設計로 三個年繼續의 六十萬圓을 計上하야 明年度額은 八萬圓이다 十五年은 單히 地均等의 基礎工事만에 止할 貌樣이며 敷地는 아마 貞洞으로 決定되리라한다 次에 新廳舍의 整理工事費로 新規四十二萬一千圓을 計上하엿

庫等의新築及修繕費百萬圓이엇다더라

昨年中의 恩給總額

十四年中朝鮮에잇는 文武官의 恩給年金支拂額은 受給者總員一萬九千五十四人에 對하야 三百八萬一千三十圓으로 被히 多數를 占하는 것이 陸軍의 七千四十二人 金額百十萬四千七百五十圓이요 次에는 警察官의 三千七百二十一人 四十三萬二千六百十圓 文官三千三百三十三人 八十三萬七百九十六圓 海軍一千三百七十九人 二十萬九千七百五十一圓의 順인데 此外家族扶助數가 一千五百人 十六萬一千九百八十八圓이엇다더라

江景養英學院 悲壯한 廢院式
三百英材를 養成하고 五個年奮鬪努力하던 大敎育機關의 最後運命

去十二日地方의 唯一한 敎育機關으로 育英의 事業에 盡瘁하던 養英學院은 爾來五個星霜을 篤志家宋秉直氏의 熱誠과 敎員明容駿氏의 精力으로 經營하야 學界의 曙光을 일우어 其間三百餘名의 英才를 養成하얏는데 學務當局者의 眇目鐵椎는 經營할 財源이 斷絶하고 敎授하던 職員이 不穩한 主義者라하야 斷然히 許可를 주지안코 도리혀 廢院하라는 嚴命을 下하야 學院當局者는 各方으로 社會에 呼訴도하고 當局에 哀願도하여가며 여러가지로 奮鬪하엿스나 結局水泡에 歸하고 貫金町同學院에서 悲壯한 廢院式을 擧行하게되얏다는데 上級入學을 準備하던 學生들은 悲憤이 자못 甚한 中時機의 切迫을 長嘆하고 拍案擲筆하는 光景이며 職員諸氏의 우리의 無能으로 이 禍厄을 當하얏다는 陳謝와 憤慨는 一層怨憤을 激하야 不平과 怨恨으로 煙鎖霧迷된 江景私立養英學院에서 師生一同은 告別하얏다더라 (江景)

南原鐵道를 期於實現코저
代表者入京交涉

積年懸案中의 南原鐵道 即南原潭陽線과 南原全州線의 敷設工事는 延期에 延期를 重하야 今年六月이 最終의 延期인데 또다시 前例를 繰返치나아니할가하야 一般有志의 代表로 南原郡守白定基 南原面長梁栽奭 學校組合管理者奧小金吾 南原電氣會社主務竹田林太郞諸氏는 總督當局及鮮鐵當局과 起工促進에 關한 意見을 披瀝키爲하야 去十三日에 上京하얏다더라 (南原)

醴泉郵便怠慢
三新聞支局에서 郵便所長에 質問

慶北醴泉地方에서는 郵便配達의 怠慢으로 不平이 만타는대 더구나 龍門寺에서는 四五日間의 新聞과 其他書信等을 얼마後에 遞傳夫도 아닌 不知人으로부터 一時에 受取케되야 不平이 滿滿함으로 當地每申、時代、朝鮮三支分局에서는 一同이 去十三日醴泉郵便所長을 訪하고 問責한後는 特히 注意하리라더라 (醴泉)

本寺에 對한 强硬한 要求
醴泉各寺住持會議

醴泉郡內各寺住持及代表者九人이 去十一日醴泉佛敎唯一學院內에서 臨時會議를 開하고 醴泉佛敎堂建築과 唯一學院維持에 關하야 長時間討議하다가 左와 如히 決議하얏다더라

一、金龍本末寺는 大正十五年度內로 醴泉佛敎堂을 新築하고 同時에 該維持費를 充分히 支出할事

一、金龍本末寺는 醴泉佛敎堂의 附屬事業인 唯一學院의 永久維持策을 樹立하야 年年히 該經常費를 支出할事

一、本會(住持會)는 醴泉佛敎振興會及唯一學院後援會의 決議에 同意할事

一、萬一本末寺에서 本會의 要求에 不應할時는 本郡內寺刹은 金龍本末寺共同事業費를 支出치안코 該事業費로 醴泉布敎堂及唯一學院을 直接經營할事等을 約定

郡廳에 連署陳情
醴泉寺財로 醴泉事業에도좀쓰자

慶北醴泉邑內에 잇는 佛敎振興會及唯一學院後援會에서는 決議書를 添付連署한 陳情書를 去九日醴泉郡守에게 提出하얏다는데 其內容인즉 醴泉郡內의 寺刹은 聞慶郡金龍寺(本寺)에 屬한 末寺인데 每年約二千圓의 經費를 本寺에 提供하야 金龍本末寺共同事業으로 여러가지 地方事業을 하게되엿는데 唯獨醴泉佛敎堂과 唯一學院에 對하야는 敎堂을 新築한다 稱하면서 今年後年 實施치아니하고 他方面에 使用함으로 結局醴泉郡內寺刹은 莫大한 財産을 消耗하면서 所屬地方事業을 經營치못하게되야 兒童敎育上 크게 影響이 미침으로 今年度부터는 右記經費를 他地方에 使用치말고 醴泉佛敎堂新築과 唯一學院永久維持費에 供하도록하여 달라는 趣旨이라더라 (醴泉)

永興綿布商 聯賣期日變更

旣報=永興綿布商朝鮮人組合에서는 中國人에게 被奪한 商權을 回收코저 여러가지 硏究한 結果 陰曆歲暮를 利用하야 聯合景品附大賣出을 經營한바 形便에 依하야 當十二月五日부터 同二十日外지로 期日을 變更하고 宣傳『비라』를 每市日마다 市內에 自働車로 撒布하고 各商店에는 聯合大賣出의 旗를 揭揚할터인데 一般은 極力贊成한다더라 (永興)

淸道少年創立
紀念歌劇도 開催

淸道光成團은 創立한지 二個星霜을 經過하얏스나 內部外部의 態度가 鮮明치못한 外에 一般이 公然하게 그 團體의 存在를 是認치아니함으로 이에 態度를 變更하야 內容을 革新하는 同時에 團名을 少年會로 定하고 十四日午後四時부터 創立總會를 開催하야 新宣言綱領을 通過하고 十六日에 少年歌劇大會를 開催하야 少年會創立紀念과 趣旨를 紹介코저 無料公開키로 決議하얏다는데 新任된 委員은 如左하다더라

◇委員 執行委員長 金鍾珠 執行委員 金德奉 尹明出 李凡吉 李光吉 朴小守 金鎬岩

◇綱領

一、少年解放을 期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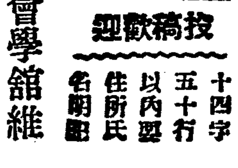
一、少年의 智的向上과 體的鍛鍊을 圖함 (淸道)

開城記者團定總

開城記者團에서는 去十五日同團事務所에서 定期總會를 開催하고 諸般事項을 決議한後 任員改選과 新入會員을 左와 如히 決定하얏다더라

◇新任委員 河在杭(開闢) 金亨根(時代) 李英圭(朝鮮)

◇新入會員 金炯培(時代) 曹漢承(東亞) 金熙同(東亞) 梁啓泰(每申) 馬海峯(朝鮮) (開城)



投稿歡迎 十四字 五十行以內 住所氏名明記

錦山靑年會學舘維持策에 對하야

◇날이가고 달이갈수록 坊坊谷谷에서 學年兒童의 入學難을 부르짓게된지 이미 오래인 同時에 擧國一致로 뜻잇는者의 焦思努力하는 點이라하며 여긔에서 白衣民族의 悲哀와 『푸로레타리아』의 슯음을 차질수잇스나 筆者가 애오라지 錦山靑年會學舘維持策에 對하야 論코저함도 此에 不過할것이다

◇錦山靑年會에서는 再昨年九月부터 無産兒童을 爲하야 또는 배홈의 機會를 失하고 街路上으로 彷徨하는 學年兒童을 爲하야 據然히 錦山靑年會學舘이란 看板을 부치게되는 同時에 百五十餘의 兒童을 收容하게되엿스며 無報酬로 敎鞭을 잡어주는 幾個靑年과 有志의 熱誠으로 微弱하나마 오늘 그만한 兒童敎育機關이 錦山靑年會의 품안에 안기여잇슴을 그뉘서 感謝를 表치아니하겟스며 그 學舘의 將來를 爲하야 祝福하지아니하라오?

◇그러나 一個年을 經過한 昨年九月부터 內容을 充實케하기爲하야 有志의 月捐金으로 有給敎員一人을 採用하게된바 去一月四日錦山靑年會에서는 緊急臨時總會를 開催하고 『學舘維持에 關한件』이란 議案이 提出되엿는데 其內容은 月捐金期限이 今年度三月(七個月間)末外지인 故로 此의 善後策을 猝然히 決議하는 것보다 좀더 具體的으로 講究할 必要가 잇다하야 一月十六日錦山靑年會定期總會外지 留案하기로 可決하엿다한다

◇아! 有志諸君이여! 七個月間이나마 快히 許諾하야 着着實現하여오는 今日에 잇서서 그 熱誠에 前功을 贊치안는바는 아니지마는 今年三月을 經過한 四月부터는 우리錦山에서 唯一의 學舘의 運命을 엇지하려는가? 東西南北으로 헤매이는 學舘生徒의 울음을 ―아니 떠뜻이 품어주던 집을 일코 『가라쳐주시오』하며 애걸하는 소연(訴)을 하는 無産學年兒童의 形狀을 엇지하려는가? 그리고 보자하던 外國人의 鼻笑는 또한 엇지하려는가? 筆者는 寧欲無言일다

◇筆者는 有志諸君의 更一層血誠을 乞하는 同時에 今般錦山靑年會定期總會에서 『學舘維持의 件』을 具體的으로 討議하야 圓滿한 結定이 잇기를 바라며 이어서 一般의 期待와 囑望에 副할것을 期待하기를 마지안는다 (韓羅山)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Tuesday, Jan. 17th, 1926.

When Mussolini Dies
The Outlook

He has no faith in their power to rule themselves. For the Machiavellian philosophy which he avows there is some basis in the temper and characteristics of the Italians, and Mussolini's lack of faith in them seems to be fairly well vindicated by his success.

"Today," declared the Premier to Parliament on November 18, "Fascismo is the only live force in Italy. Everything else can be relegated to the museums." But Mussolini does not understand some other folk as well as his own people if he believes what he said when he added: "The whole world is now talking for or against Fascismo, because Fascismo contains of universal character.... we who fought the war and suffered after the war have the privilege of imposing discipline on the present generation.... This century must be, as we have already termed it, a century of Italian power."

Mussolini evidently cannot understand that there may be people in the world who are accustomed to exercising the art of self-government. He will encounter such people as he goes to England, according to his plans, to sign the Locarno pact on December 1. He would find it entertaining to try to handle the English as he has handled the Italians.

Such a government as that of England will never experience the benefits of a Mussolini; but it also will never suffer the sort of shock that apparently is inevitable for Italy when Mussolini is carried off by a motor accident, or a disease germ, or an assassin's bullet.

美文欄

黑衣宰相이죽으면 (完)

豐角市場移轉

淸道豐角市場은 基地가 狹小하고 또 低濕하야 發展上 餘望이 少할뿐아니라 每年洪水가 汎濫하야 市場住民의 不安이 不少한바 客年六月부터 市場移轉問題가 起하야 道當局에 三次나 交涉한 結果 客年十二月二十八日附로 道廳에서 市場移轉을 許可하야 至今부터 新市場을 豐角面事務所前에 施設할 作定이라는데 新市場居住人二十五人中二十二人은 新市場에 敷地를 買收할터이며 外三人은 經濟上 移轉이 困難함으로 面所에서 代土를 買與할 計劃이라더라 (淸道)

茂長勞働臨總

全北茂長勞働會에서는 去十三日同會舘內에서 臨時大會를 開하고 會費에 對하야 每月五錢式하든것을 一年中二期로 分하야 每期二十錢式 徵收키로하고 共濟事項에 對하야 長時間討議한後 哀慶에 二十圓式 共濟키로하얏스며 新入會員通過及役員補選이 잇슨後 茶菓會로 閉會하얏는데 去年의 收入은 五百六十三圓三十六錢이오 支出은 五百六十七圓八十七錢이라더라

羅州本良面 水利組合設置에
道廳態度模糊를 非難

全南羅州郡本良面錦石洑의 灌漑水를 利用하는 作付反步는 二百餘町步이다 그러나 錦石洑의 不完備로 因하야 조고만 旱魃만 잇서도 農作物이 充實히 成熟치못함으로 本良面民及地主側에서 錦石洑의 完備를 爲하야 本良面水利組合을 設立하려고 全南道當局과 交涉한바 道廳에서는 昨年四月二十日頃부터 錦石洑의 實狀과 灌漑水의 蒙利區域을 調査한後 何等의 處置가 無함으로 面民側에서 更히 道當局에 陳情한바 道當局에서는 經費上 工事難을 口實로 拒絶함으로 面民及地主側에서는 道廳에서 旣往調査가 完了되엿슴으로 그러면 工事費가 幾何를 調査하야 面民及地主側에서 負擔할 可能性이 無하면 已어니와 豫算의 明示도 업시 豫算問題로써 水利組合設立難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糊塗한바 道廳에서는 다시 實地調査를 하여 보겟다하고도 今外지 調査하지아니함으로 面民은 企待하다가 거의 落望中이라는데 本良面長金錫奎氏는 本良面水組合의 設置를 人民側에서 渴望하는바인즉 自己도 民望에 依하야 絶對로 道廳에 交涉을 始하려하며 若道廳이 人民의 渴望에 不誠意한다하면 이것은 農事改良及農民生活上 關係가 莫大할지오 面民及地主側一同도 엇더한 態度를 取하리라고 한다더라 (羅州)

庫品은 正租五石과 大豆九石과 棉花八百斤이라하며 今番補選役員은 如左하다더라

◇任員 幹事 金在洪 金永善 韓甲用 庶務 曹相國 (高敞)

金堤中學의 堤堰貸付交涉
知事의 言明으로 十二分을 樂觀中

全北金堤中學期成會에서는 東津水利組合이 됨을 利用하야 廢止되는 堤堰을 貸付코저 交涉中이라함은 旣報한바어니와 去十一日金堤郡代表金演植 趙方暉 郭錦 趙在述 趙秉憲 李鉉稿等六人이 直接道知事以下學務課長及農務課長에게 中學期成會의 內容과 其他東津水利組合內容을 述한後 廢止되는 堤堰을 中學期成會에 貸付하여달라고 陳情한 結果 道知事는 그 中學期成會는 매우 贊成한다하며 堤堰貸付에 關한것은 自己立場으로 確言할수는 업스나 萬若東津水利組合이 完成되야 堤堰이 廢止만된다하면 代表된 六人의 貫意를 參酌하야 貸付하겟다고 明言함으로 代表者들은 堤堰이 廢止된 事實임으로 貸付를 期必한다더라 (金堤)

火畵士晋州着

火畵士白鶴起氏는 全羅及慶北을 거쳐 日前晋州에 來着하야 近近展覽會도 開하고 一般에게 公開한다는데 山水及人物을 熔畵鐵描하는 光景은 實로 造化의 神을 駁하는 壯觀이 잇다더라 (晋州)

…… 左와 如히 決議하엿다더라

◇決議

一、會費收入에 關한件

一、全南靑年聯合會召集에 關한件

一、蘆恩小作爭議에 關한件

一、其他

一、芦花靑年運動을 積極的援助키爲하야 委員을 選擧派遣할것

二、少年團巡回講演隊를 組織하야 同件出演할것 (木浦)

釜靑臨時總會
懇親會形式으로

當地釜靑年會에서는 去十四日東邊里金容洛家에서 臨時總會를 懇親會形式으로 열고 左記를 決議한後 茶菓로 閉會하엿다더라

◇決議

一、宣言綱領規約修正의 件

一、經費問題의 件

一、郡內靑年團體聯合新年懇親會發起의 件

永川市場 徵稅問題
一般은 不平 穀商은 抗議

永川市場稅는 昨年調定額이 二千百餘圓이엿는데 그도 徵收方法이 不完하야 監理人의 專橫으로 中間徵收人의 私腹을 充함에 不過하엿슴으로 每樣市民의 不平이 不止하던中 今年에는 旣定額二千百餘圓에 對하야 二百圓增加키로 郡當局에서 調定하고 此徵收方法에 關하야는 監理人致政後의 意案으로 前例의 市場稅徵收區域을 變更하야 市日에 限하야 家屋內에서 賣買되는 物品에 對하여도 稅金을 徵收하자는바 此에 對하야 一般市民은 不平이 沸騰하며 第一影響이 만흔 穀物商側에서도 對策을 論議中이든바 問題는 解決되지못하야 目下穀物商側에서는 郡當局과 面當局에 交涉中이라더라 (永川)

靑年修養會總會

咸南三水靑年修養會에서는 去八日同會舘內에 臨時總會를 開하고 會長에 金萬熙 副會長에 金殷瑞氏가 被選되야 左記事項을 處理하고 閉會하얏다더라

一、基本財産整理의 件 一、各部事業進行의 件 一、新年預算編成의 件 (北靑)

東明團을 靑年會로 改稱
內部도 大加刷新

咸南文川郡龜山面에 잇는 東明團은 去十五日臨時總會를 開催하고 名稱을 東明靑年會로 改稱하엿스며 規約其他一切內部를 時代靑年運動에 適合하도록 全部刷新하얏는데 任員及決議事項은 左와 如하다더라

◇任員 會長 金秉洛 副會長 朴春健 幹部 金基錫 金炳和 車盈春 金錦團 韓昌鎭 石成厚 金在三 朴鍾仁 殷熊奎 李顯昌 外六人

◇決議

一、當地新浦學校內에 勞働夜學을 開催할일

一、每月一回式附近村落巡廻하며 講演會를 開催할일

一、其他事項 (文川)

相信組合解體

咸南洪原郡前津相信組合에서는 會員全部가 洪原勞働組合에 入會하엿슴으로 지난九日에 該組合을 解體하엿다더라 (洪原)

金堤郡 靑聯禁止後報
靑年은 憤慨하야 警察에 抗議코저

全北金堤靑年聯盟은 創立當時에 禁止를 當하엿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當日正私服警官隊二十餘名은 場內는 勿論 校洞一帶를 包圍하고 嚴重한 警戒를 하는 同時에 金炳鉉、李泰吉兩氏의 家宅을 搜索하야 多數한 書類를 押收하엿스며 金炳鉉一氏는 二日間이나 拘禁하엿다가 去十三日에 釋放되엿는데 金堤靑年聯盟發起會의 準備委員들은 警察當局에 對하야 善後策을 講究中이라더라 (金堤)

醴泉市電設計
三月에 通話된다고

慶北醴泉은 嶺南地方에서도 有數한 商業地로서 市內戶數가 千戶에 達하며 市場도 極히 殷盛함으로 市內電話를 架設코저 醴泉郵便所에서 遞信局에 認可를 申請하엿다는데 認可가되면 二月末頃架設工事에 着手하야 三月中에는 通話되리라하며 現在志願者는 아직 三十七名이라하며 一個所에 對하야 百八十圓의 架設費用을 負擔하여야한다더라 (醴泉)

勞總加盟決議
洪原勞組 兼하야 勞農分化도 贊成

咸南洪原郡洪原勞働組合에서는 去九日第九回執行委員會를 開催하고 左記事項을 決議하엿다더라

◇決議

一、朝鮮勞農總同盟에 加盟하고 勞農分立을 贊成할것

一、本組合이 朝鮮勞農總同盟에 아직 加盟치아니함에 不拘하고 加盟團體로 認定한 某督促狀을 發送한 理由를 問議할것

其他事項

豐山駐在郵便
本月十六日부터 實施

慶北安東郡豐山은 安東醴泉間의 中央에 在한 樞要地로서 前面에 廣大한 平野가 잇고 市場이 매우 繁盛하나 아즉外지 郵便取扱機關이 업서 一般이 不便을 感하더니 遞信局에서는 經費關係로 郵便所는 設置할수업고 그代에 郵便集配人二人을 駐在케하야 豐山市場은 每日配達하고 其外의 豐山面과 豐南豐西豐北의 各面은 二人의 集配人이 交替하야 隔日配達하는데 駐在郵便取扱者 卽集配人監督은 豐山駐在所主任巡査라하며 郵便物도 該駐在所에 保管하야 區內郵便에 關한 配達及發送事務를 取扱케한다는바 前記四面의 郵便區域은 醴泉郵便所管內에 屬하고 集配人도 醴泉郵便所에 指定하라고 遞信局에서 醴泉郵便所長에게 指令이 잇서서 本月十六日부터 實施하얏다더라 (醴泉)

寒暖不調로 新院感冒續出
一般은 注意할일

黃海道載寧郡新院에서는 近日寒暖不調로 感冒患者가 續出된다는데 더욱이 小兒에게는 特히 注意할 必要가 잇다더라 (新院)

昨年新院屠殺數
昨年의 屠殺數는 再昨年보다 增加되엇다

黃海道載寧郡新院屠殺場에서는 大正十四年一月부터 十二月外지의 屠殺數는 牝牛가 八八頭 斤數는 七六〇〇斤이오 牡牛一〇五頭 斤數가 八一〇〇斤이라는데 前에 比하면 大端히 屠殺數가 增加되엿다더라 (新院)

北靑少年會發起

北靑邑內에서는 有志諸氏와 靑年會後援으로 去十三日에 少年會發起會를 靑年會舘內에서 開催하고 規則作成과 創立準備를 決定하얏다 (北靑)

尙州勞靑委員會

慶北尙州勞働靑年會에서는 去十三日同會舘內에서 第四回執行委員會를 開하고 來二月二十日開催되는 少年少女雄辯大會에 對하야 永同、漆谷二郡을 參加區域으로 編入할것과 其他事項을 決議하고 執行委員三人을 增選하고 閉會하엿다는데 決議事項은 다음과같다더라

◇決議

一、雄辯大會區域擴張의 件

一、講演會開催의 件

一、來二十日本會舘에서 臨時總會開催의 件

一、增選委員 金虎 金大福外一人 (尙州)

各地의 煙草消費

◇煙草專賣局新上里出張元賣捌所의 過去一年間春柳面文山面林面長原面高山面廣德面宣德面朱伊面八面의 煙草販賣한 金額이 四萬四千七百六十四圓이라는데 大正十三年度에 比하면 一割以上이 增加 (新上)

◇元山煙草元賣捌所管內의 客年中煙草賣上高는 總額이 五十七萬四千七百七十三圓三十八錢六厘라는바 前年度에 比하면 三萬千百十七圓八十錢八厘가 增加 (元山)

◇煙草元賣捌株式會社金浦出張所의 昨年一年間煙草販賣高는 五萬七千四百四十一圓十四錢인바 現在金浦郡戶數九千二百四十五戶에 案分하면 每戶當六圓二十餘錢式이라하며 十三年度販賣高五萬七千九百三十九圓九十三錢에 比하야 約五百圓이 減少 (金浦)

◇慶北尙州郡內에 昨年四月一日로부터 同年十二月末日外지 煙草消費된 金額은 四萬六千六百四十六圓 (尙州)

◇龍川郡南市煙草專賣局營業所에서는 昨年一個年間煙草賣出高가 三萬九千七百九十三圓五十錢 (龍川)

篤志美行

◇聞慶 戶西南面長申鶴均氏는 貧民救濟、籾種價代納、渡船場修築、戶西南學校設立、店村市開設等에 努力이 多하야 面民은 頌德碑를 治石中이며 官廳에서는 銀盃賞與 (尙州)

◇英陽 市內西部洞朴東漢氏는 夏休歸鄕한 苦學生에게 旅費補助도 不少하며 今番學生巡講團을 爲하야 또 盛大히 招待 (英陽)

◇慶州 慶州面金鍾殷氏는 昨年風水災로 小作料를 半以上 免減

◇三陟 朝芝里崔元伯氏는 區長으로 잇서 領受한 賞金을 里有山林組合基金으로 提供하야 其利息으로 同里組合費를 充用케하얏다고 (三陟)

◇金化 近北面栗木里張仁燮氏는 不贍한 家勢로 그 四寸叔의 債務三百餘圓을 代納하고 其家族을 扶養하얏다고 (金化)

◇利川 淸渼面松山里朴文采氏와 그 夫人具氏는 六年以來病으로 呻吟하는 母親趙氏를 爲하야 侍湯에 不怠한다고 隣里가 稱頌 (長湖院)

◇茂朱 邑內公醫金容誠氏는 患者에게 至極親切하야 患者가 오면 深夜라도 診察 (茂朱)

◇水原 學源面下加等里李裕根(二四)氏는 六十四歲된 그 父親의 長久한 病을 救코저 斷指試用한 結果 百藥無効하던 病이 全快 (水原)

地方學界

麻城學校新成
春期부터 開校

慶北慶州郡麻城面에는 四方으로 學校가 멀고 배흘 兒童은 만함으로 一般이 恒常憂慮하든바 去今으로부터 三年前에 普校期成會를 組織하야 以來만히 努力하야 오든바 建築費萬三千餘圓이 募集되여서 去秋부터 面近處에 建築中이라는데 工事가 거의되야 來新學期부터는 開校되리라고

◇安邊農民夜學 咸南安邊郡日溫靑年會에서는 農民夜學會를 開催하고 金是煥、金是澤、金達元、崔弘淳、金是必諸君이 熱心敎授中인바 學生은 近五十名이라고 (新高山)

◇文興夜學盛況 咸南安邊郡衛文靑年會에서는 寺里에 文興夜學部를 設하고 農民敎養運動에 置重하는데 蔡奎燮、李昇冠、趙稟燮、高宗旭諸君이 獻身的努力으로 敎授를 하는바 學生은 四十三名이라고 (新高山)

◇順天勞學開學 全南順天郡勞働學院에서는 去十一日夜學生數十名과 學父兄其他有志數十名이 會集하야 夜學開學式을 盛大히 擧行하고 開學紀念講演會外지 열고 朝鮮勞農總同盟中央執行委員鄭泰重氏와 順天勞働靑年會委員姜基碧氏의 講演이 잇섯고 繼續하야 同講演堂에 臨時會議를 열고 同夜學의 前途를 討議한後 任員을 選定하니 左와 如하다더라

◇任員 院長 朴勝奉 學務委員 李昌洙 朴炳斗、宋台燮、金基洙、孫南三、姜基碧、金奉珉、梁仲植 學務部 李榮珉 (順天)

◇北面公普增築 慶北聞慶郡山北面山北公立普通學校는 겨우 四學級밧게 업슴으로 一般學父兄들은 恒常遺憾하든바 去秋學父兄會를 開催하고 여러가지로 協議한 結果 同情金을 만히 募集하야 敎室三棟을 新築하야 工事가 完成되엿슴으로 來新學期에는 六學級外지 잇스리라고

◇普光講習所 慶北尙州私立普光講習所는 金龍本末寺에서 無産兒童을 爲하야 創設한것으로 現在五學級出席生이 二百餘名이나되는데 敎室이 甚히 狹窄한中 今春에 또 一學級을 募集케되면 到底히 兒童을 收容키 難한 現狀이나 金龍寺에서는 京城中央財團에 出資로 因하야 所從의 餘力이 업나하며 一般人士中에서도 또한 義金하는 者가 無하야 將來가 一問題라고 (尙州)

◇義州勞農夜學 義州松長面有志靑年諸氏는 年前부터 夜學會를 設立하고 以來數年間 푸로少年敎養에 全力을 傾注하는中인데 客年末에는 同夜學을 始하야 雄辯大會를 開催하고 去三日에는 本報義州支局으로부터 賞品授與外지 擧行하얏고 또 近間에는 內容을 革新하야 勞農夜學으로 變更하얏다고 (義州)

◇利川勞働夜學 利川長湖院勞働夜學講習所는 設立後成績이 日益良好하야 就學코저하는 學生은 遝至하나 敎室이 狹窄하야 이로 敎授치못한다고 (長湖院)

◇松洞夜學好績 慶北星州郡 …… 夜學會에 對한 熱心으로 敎授한 結果 生徒들도 一人의 缺席도 업시 全部出席하며 洞中有志義捐金도 遝至한다고 (星州)

◇慶州開闢支社 慶北慶州邑에는 從來에 雜誌支社라고는 一個도 無하고 …… 開闢雜誌支社가 有하야 一般社界에 貢獻이 不少하얏스나 其亦長久치못하고 中止狀態에 在하더니 今般慶州邑路東里崔東石氏가 開闢支社를 設立하고 位置는 臨時南門內金成吉氏家에 定하얏는데 購讀코저할時는 前記住所로 請求하야 주기를 바란다고 (慶州)

◇靑松面書記講習 慶北靑松郡에서는 來二十五日부터 五日間豫定으로 同郡廳會議室에서 各面書記講習會를 開催하리라는데 受講生은 各面으로부터 書記一名式 出席케한다더라 (靑松)

寸鐵

【金堤】 東津水利組合이 되는 통에 金堤市內에는 딸각발리소리가 震動한다던가 水利組合에는 마른신을 신는 사람은 아니되는 것이지!

【錦山】 ◇ 靑原公普校學年延長에 對하야 當面有志의 熱誠도 무던하거니와 當局者의 兩兩도 왜ㅡ무던한 模樣인데 敎室도 잇고 돈도 잇스니 使用할 方針을 指示하라는 陳情委員의 말만은 無心히 들을수 업는 일!

【安城】 ◇ 安城郡孔道面育英學院의 經費困難을 救濟코자 同面夾進靑年會와 此에 同情하는 忠南稷山郡稷山親睦會에서 素人劇을 安城邑內에서 興行하는 同時 當地人士에게 案內狀外지 發送하엿섯는데 總收入金이 八十錢也라고

地方人事消息

▲張仁煥氏 (本報大邱支局長) 는 來十八日이 祖母小祥임으로 去十六日陜川草溪自宅에 發向 (大邱)

安重根寫眞으로 青年二名被捉
안씨의사진을한장구하여 복사를만히하여팔려다가

황해도재령경찰서(載寧警察署)에서는 수일전부터 모모방면에 활동을 계속하는터인데 지나간 십사일에는 재령군 상성면청석두리(載寧郡上聖面青石頭里)에 거주하는박긔병(朴淇秉)(三)이란청년한명을 톄포하야 현사자분묘초상취톄령위반(刑死者墳墓肖像取締令違反)으로압송한바지금에그자세한 내용을보도하면 권긔박긔병이란청년은 수년전에합이빈(哈爾賓)에서이동박문공(伊藤博文公)을총살한안중근(安重根)씨 사진한장을 구하여가지고잇섯든터인데 그사진은 쇠사슬모경박된뒤에 박이것이며 지나간십일월 이십일일중에 황해도신계군읍내면 향교리(黃海道新溪郡邑內面鄕校里)에서려인숙하는 조긔현(趙基鉉)집 에서 우연히 옹진군마산면온천리(甕津郡馬山面溫泉里)에서 사진사(寫眞師)영업을하는 김영교(金永敎)(三)라는청년을 알게되야 권긔사진을 뵈이게 되엿섯는데 김영교는 그것을복사하야 비밀리에팔기로 결심하고 권긔박긔병의승락을 엇게되야 즉시삼십매를 복사하여분배를하고 각기도처에서 팔매를 계속하다가드듸여관헌에게발각이되야권긔김영교는 옹진경찰서에 피착이되얏고 그단서로 박긔병까지테포를당한바이라더라(재령)

端川郡廳內 瀆職者의醜態自白
할수업서그랫노라자백하고 칠일에검사국으로넘어갓다

함남단천군청(咸南端川郡廳)에서 근무하는 군속 엄주만(嚴柱萬)은 당디엇던부호에게위협하고 돈오백원을 홈쳐먹은것이발각되야 당디경찰서에 잡혀가서도 번번한그자는 그런일

업노라고 부인을한다함은 이미본보에 보도한바사실과 증거가 넘우충분함으로 그자로도엇지할수업섯던지그의일에는 제죄를다ㅣ자백하엿슴으로지난구일에 그피해자들까지 검사국으로 넘어갓다는데 그자세한래력을듯건대 아래와갓다한다 권긔엄주만은 지나간 유력십월일일에당디광천면(廣泉面)에토디

조사출장 을나갓다한다 그래서 동면운천리부호 김약한(雲川里富豪金躍漢)씨의토디를 측량하여보고 과세(課稅) 안된땅이 일만팔천평이나 잇스니 이것은 국유디로하엿다고 위협하엿다 그래서김약한씨는 자긔의소유디가 국유디로된다는 사실이넘우 억울하야 될수잇는데까지 소유디가되게하여 달라고

애걸복걸 하엿다 엄주만은 이것을 긔회로알고 그러면특히 민유디로하여줄것이니 수속비용으로 오백원만내이라고 하엿다 공판을분별치못하는 김약한씨는 소유디가 되다는말에 그만 반거워서 즉시승낙을하엿다 그러나 당일에현금이 그러케업슴으로 후일에주기로 차용증서를 하여주는데 동면김하준(金河畯)씨가 보증까지섯다

그리하야 지난십이월이십칠일에 김약한씨는 그아들진목(尹穆)씨로하야 돈삼백이십원을 엄주만에게보내주고 또이달초삼일에 일백팔십원을 마저 갓다주엇다 엄주만은 이돈에다케돈까지 보태여 륙백원을 본집에부쳣다 그러고도 경찰서에 잡혀가서는 번번하게도 당분로 외일까지사실을 부인하엿다 그래서 비가집에보낸

돈륙백원 이어데서나왓느냐고한즉 아니요그돈은 읍내 최동우(崔東宇)씨에게서 김긔원씨의 보증으로 차용한것이라고하엿다 그러나 맛내 사실이 증명하고 증거가충분함에 엇지할수업서서 일일히자백하엿슴 그래서 보증을섯고 협의로잡혓든 김하춘씨들은 노이고 엄주만김약한 김진묵

세사람은 지난구일에함흥디방법원시청 북청검사국으로압송되엿다더라(단천)

九月山模範森林에 橫暴한保護員
일도면민은도당국과 장련경찰서에진정서

황해도 은률군일도면구월산(黃海道殷栗郡一道面九月山) 부근에잇는 주민들은 그곳에와서주재하는 도모범림 보호원 (道模範林保護員)의 횡폭한행동으로 도저히 그곳서 살아갈수업다하야 그에대한 처치방법을 도당국(道當局)과 관할장련경찰서(長連警察署)와 일도면산림보호조합장(一道面山林保護組合長)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엿다는데 이제 그자세한 내용을듯건대 원래그곳주민 수백여호는 오직구월산에생명을달고화뎐(火田)과숫구이(埋炭)부산물채취등으로근근연명하여오든바작년봄부터권긔보호원이 그곳에 주재하게되고로는 화뎐과숫구이는 물론심지어녀자들의산채(山菜)뜻는것까지 엄금하는중 지난번에는신암리(新岩里)사는 홍승설(洪承燮)씨가수년전에 쓰지못할나무멧개를 주어다두엇더니 그것을권긔보호원이 가보고 이것은구월산에서 벌채한것이라하야 백탄(白炭)석섬만 바치지 안으면 상당한 처벌을한다하매 권긔홍씨는 마지못하야 종내백탄석섬을마치고야 마른불이잇스며 그후동리 리원월외수명에게는 구월산에서 친신(親新)을 베엿다는구실로수삼차주육(酒肉)의향응을바든후에야묵인하여준일과또한동리여인겸(呂仁謙)최태봉(崔泰鳳)외십여명에게 삭권한푼아니주고삽사일식로역(勞力)식인일부수한 비행을 낫낫치적어서이러한횡포무상한 보호원을어서속히처치해달라는뜻으로 그와가티청원한것이라더라(장련)

日鮮差別하는 松坡金融
구한국돈밧구는데 일본사람은무석권

송파금융조합에서는구한국화폐를 교환하는데 일선인의차별이 심하다고 일반의 비난이만흔데 그자세한 내용을듯은바에 의하면 구한국화폐를 십이월삼십일일까지 각은행 금융조합에서교환한다는 발표가 잇슴으로당시 각상인과 농민들은 그날까지교환하엿스나미처교환치못한이는 고심하든중 다시 일월십오일까지 연긔하엿다는 발표가 되얏슴으로 다행으로 생각하는각상인과 농민들은 동음하면서 동음용환을 허러갓더니 동조합에서말하되 금일부터 정지하엿다고교환을거절함으로긔한이십오일까지인대 엇지하여 교환치아니하느냐고 물은즉그한은 십오일까지이나 오날부터 문부더리를삼일동안하야 조선은행으로 보낼터임으로 교환할수업다고 거절함으로 할수업시 도라가란할지음에 일본인(日本人) 전구금조남(田口今朝男)과 전중종길(田中宗吉)로부터 교환을하러온것을즉시밧구어주면서그제야 권긔리래현(李來鉉)에게도교환하야주엇슴으로 일반은 이소므을듯고 분개함을 마지아니하며 원선인에 차별이심한 동조합의 처치에여론이분분하더라(송파)

所謂出初式으로 消防隊暴行頻頻
경관은수수방관할뿐

의주군 주내면 원화동 (義州郡州內面元化洞)에 잇는구룡포소방조(九龍浦消防組) 에서는소위출조식(出初式)이란명목으로지난십사일을 부근어천동(於赤洞)과 원화동방면에삼사십명이떼를지여 도라다니며 유흥비(遊興費)를청구하다가 가치의들의요구에 다소간들 림이잇다고 불한당 (不汗黨)의 심사를 함부로부려서 순량한 촌민을후욕하며 위협하며심지어 촌가의당장이라고 할울타리 (일명바주)를 죽여버리며 집웅을벗긴다 가구(家具)를 뗴트리며싸하둔 곡식을 쉬여함부로 색리며볼안붓는 집에 『불』을질르는등 가진폭행을 다함으로 헌모르는 촌민들은 소위경관이라는 자가 따라다니면서도오히려호원의가세(加勢)를 보힘으로 엇던명문인지 모르고그자들의 청구하는대로 혹은 이십원 혹은십원이란 막대한 금액을 울며겨자먹는격으로 할수업시 승낙하얏다는바 조석이 말유한그네들이라 승낙한 금액을 변통할길은바이업고 안내면 장차무슨후환이잇슬것을 념려하야 그곳사람들은 매우근심과걱정으로잠을잘자지못한다하며불한당(不汗黨)가튼 소방대들은 이백여원을 술갑으로탕진하야 사오일을련하야(륙일까지) 소위방화연습(防火演習)이라핑계하고 술만먹엇다더라(의주)

新年劈頭에 南市消防組暴行
출초식여흥으로부녀구타 문짝을떼고솟을뽑아버려
被害者는告訴를提起하엿다고 關西記者團調査發表

평북룡천군외상면남시동(平北龍川郡外上面南市洞) 소방조데이부(消防組第二部)에서는지난십일출조식(出初式)날 의연금(義捐金)을 모집하러 다니다가 동일오후세시쯤 그동리 백사번디뎡윤봉(鄭允鳳)의집에가서주인을 차젓스나 주인은마츰산양을가고 업슴으로안해송산월(宋山月)(二四)이가 주인이업다고한즉 그때에는 그대로지나갓다가조금후에 다시와서 주인을차즐때에 송산월은손님(客)이 잇슴으로 미처대답을 못하엿더니무슨고관대직(高官大職)이나한듯이 평거에의긔등등하던 소방조두(消防組頭)와부조두(副組頭)등이 달려들어 이집은엇던놈의 집이기로 못드러가느냐 하며문을열어 다짐으로 송산월이가 종굴공하한말이잇섯다고 권긔두 조두는 이젊은부인의 머리(頭髮)를움켜잡고 거리로끌고나와서 무수란타를하고도 오히려부족하야 이러한분놈은 우리동리에두지안는다하고박모(朴某)와최모(崔某)두부하를식혀 문짝(門戶)을 뗴며 솟(鼎)을 깨는등별별괴악한 폭행을 다하엿다하야 그디방사람들은 모다분개히역임을 마지안는다하며 피해자의남편뎡윤봉은 지난십일일에 구타(毆打)겸 가택침입죄(家宅侵入罪)로 권긔두조두를상대로 고소(告訴)를뎨긔하얏다더라

南滿에잇는 開原義塾
경영방침결뎡

남만주 개원에서는 그디방에서 곡물무역업(穀物貿易業)에종사하는 유지인사들은 항상조선인자데들을 가르치는교육긔관(敎育機關)이업슴을유감으로 생각하야 수년전부터개원의숙(開原義塾)이란것을 설립하고남녀학생오륙십명을 가르치며 일방으로 개원조선인학교조합(開原朝鮮人學校組合)을조직하야 개원에 거주하는조선인으로는 누구나 다ㅣ학교조합원으로 인정하야 각기묘합원에게는 의무부담금(義務負擔金)을 배정하고 그수입으로서 개원의숙을 경영하여오든바 그조합은 너무범범한감이업지안음으로 결국 수입되는 그금액도근소함으로 당국지난 일월구일 오전열한시부터 이에대한 선후책을 강구할차로 학교조합총회를 개최하고 학교경영방침과 경비, 예산등을 란상협의하엿는데 그결의 사항은 아래와갓다더라

◇決議事項

一、學校經營方針에는從來外지四年級制度를變更하야五學年乃至六學年制로하고日本國敎育制度와連絡하야此에對한敎員을追加하고敎室을擴張할것

一、經費豫算案改定은從來外지泰票로一年度豫算이一千三百元이든것을金貨二千圓으로變更하고從來의學校組合을解散하고鄕席에서下記와如히每年負擔할金額을各各定하고그들을會員으로하야開原朝鮮人敎育協會를創立할것

◇負擔金額

三百圓知足農村 二百圓信興號 二百圓開原公司 二百圓三一公司 一百圓益盛商會 一百圓共益商會 一百圓義信商會 一百圓開協公司 六十圓府興商會 三十圓新盛商會 三十圓掬農商會 一百圓朝鮮精米所 十圓具永會 十圓標大有 二十圓蔡永默 五圓金敬漢 二十圓崔周敏

◇任 員

會長洪淳亨 幹事崔承賢 財務李俊寬 評議委員崔晃極 崔敏求 顧問 金雲瑞 張寬善 李寬熙

◇敎育協會役員

協會長趙道一 書記盧仁沐 理事 金雲瑞 李俊寬 等諸氏가被任되엿다더라(開原)

登山電車顚覆 乘客全部死傷
남녀사자가열아홉명이오 중상자열명경상자삼십명
日本箱根地方의大慘事

십륙일오후두시경에 일본상근궁지하소학교(箱根宮之下小學校)압헤서강라행(强羅行) 등산뎐차(登山電車)가 탈선뎐복하야 승객사십명중 남자로죽은자열다섯명과 녀자사자네명중상자열명경상자삼십명을내인 대참극이잇섯다고보가 동경시텽에드러왓다더라(동경지국뎐보)

堤防工事場의慘劇
공사를하든중산이무너저서 공부두명이죽고한명이중상

십륙일하오한시경에김포군홍도평(金浦郡洪島坪)수리회사 (水利會社) 뎨방복구공사장에서일하든인부가 동군내면 북변리(郡內面北邊里)공동묘디(墓地)부근에서흙을파다가산이돌연문허저죽사자두명중상자한명을내엿다는데 죽사자는 경남(慶南)사는윤치화(尹致化)(三)와리성수(李成洙)(三)의 두명이라 하며 중상자는 강화군하도면덕포리(江華郡下道面德浦里)김춘만(金春萬)(二五)이란는데그외사생명이위독하다더라(지국뎐화)

鳳山西鍾面民이 面當局에陳情
호구지책이묘연타고

봉산군서종면(鳳山郡西鍾面)면민들이재녕강 하천공사 (載寧江河川工事)를페지하기때문에 살수가업다고면당국에진정서를데출하엿다함은 이미 보도하엿거니와 십이일에는 또본면동둔리(本面東屯里)구장리재탁(區長李在洛)이외리민(里民)사십이인이연명하야 면당국과 본면주재소에 진정서를 데출하엿다는데 그진정서내용은 사연간을 수재로 인심이 극도에 달하엿든바 설상가상으로 하천공사에 농토(農土)까지진폐(陳廢)케됨애 할수업시 농사를 폐하고그공사에노동하야 만치못한 임금으로하루하루를 지내왓는데 요새는그공사까지정지(停止)케되여 이제는생활할길이업스니어더한 방침으로든지 호구할길을 열어 달라고하엿다는데 그 진정서를 바든당국측에서는 각각 상급관령으로보냇다더라(사리원)

노름에일흔煙草價 强盜마젓다고誣告

영천군영천면문외동 권응식(永川郡永川面門外洞權應植)은 당디 관본(坂本)이란 만선도매상(滿鮮都賣商)의고용인이되야외촌으로행상하든바금월칠일에청도면동당동 김래곤(淸道面東堂洞金來坤)가에서현금중한 대금이백칠십원을도박해일고주인관본에게할말이업서서 도라와 그주인에게는 오든길에 강도를만나 빼앗겻다고 무고하엿는데 당디경찰서에서 됴사한결과 허위의사실이 판명되야 목하권흥식(權興植)을 취됴중 이라더라(영천)

嚴重한警戒中에
범인세명에경관이한명 소요죄로형무소로호송

무안군자은면(務安郡慈恩面)소작쟁의(小作爭議)로인하야오십여명의 다수한농민이 검거되야목포서(木浦署)에서신음한다함은 이미보도하얏거니와 그중열다섯명은 방면되엿다 하며삼십구명은이미소요죄(騷擾罪)로 지난 십오일오전여덟시 사십오분에 광주형무소로 호송되얏다는데 범인세명에 경관한명식 느러서서 목포초유의 현상을이루엇는데 문데의문재뎡(文在喆)의아들은 그당시 구경하려왓섯다더라(목포)

松嶽山麓監房中에 自由일흔少年들
현재사백팔명의소년죄수 그들의대부분은절도죄로
開城少年刑務所訪問記

개성(開城)의일홈잇는명소선죽교(善竹橋)와호도메뎡(町)에지나지안는거리에 울울창창한 송악산록(松嶽山麓)을배경으로하고 유유히서잇는 벽돌집건물이 잇스니 이는지금긔자가 말하고저하는인간의 명부소년형무소(少年刑務所)이다 붉히싸흔붉은벽돌의 장벽한경을 경계선으로하고 그안은 이세상이안인 딴세상으로서 사람으로는 누구나다가지는모든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일흔

빼앗기고 어둠컴컴하야 하날을보지못하는감방(監房)속에서마치무슨긔계(機械)나다름이업시 구속과 조종을바더가면서 먼농이 든지도안은일은 새벽부터하날에 별이 반작어리는 어두운커녁이될때까지 이리도처리로몰리여다니며 힘에 지치는 로역(勞力)에 모든피땀을 흘리고나서 또다시 도수장(屠獸場)으로 잡히여 드러가는 즘생들과가티 그 어둠컴컴하고 쓸쓸한감방으로 몰리여드러가는 재감동포(在監同胞)들의 살림 사리가 엇더한것을 아라보자이개청소년 형무소로 말하면그글자의뜻대로

소년범죄 (少年犯罪者)만을련문으로수용하는곳으로서나히의규뎡으로말하면십세살로부터 열여덟살까지의 소년들을만을수용하는데 현재 사백여덟명의 소년죄수가 살림을하고잇는중이라한다

그런대 이죄수의 총인수인사백여덜명중에 녀자는 이형무소규측에수용치 안는규측임으로 한사람도업고 전부가 남자들로서 그가운데일본인(日本人)은 겨우열네사람에 지나지 안코그외로는 전부가 조선인이라한다그리고 우리의 경제계의파멸을 라라(赤裸裸)하게

암시하는 혐벗고굼주림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절도(窃盜) 범죄자가 이형무소안에잇는 범죄자를 전부 차지하다십히 전범죄자의 팔할이 넘는다는 놀라운 수효를 가지고 잇다한다 그리고 형긔로말하면 데일긴 것이일년으로부터 데일만은것은 칠년까지 가잇다는대 대개가 다초범(初犯)으로재범삼범까지도 잇스나 극히드물다하며 언어디방사람이 데일만호냐하면 경긔도평안남도 그리북도사람들이 현재 상태로는되일만다한다 그러면 그네들의

매일가티 온갓힘드는일로서 문여하는종류와 죄수들의 천도를 위함으로써 맨드리노와다하는 교회(敎誨)긔관들을 아라보면먼저 그들을 로역을식히는대는 그당자의 범죄의동긔와 인격가뎡의 상황등을자세히알아본 이후에 덕당하도록거룰롱을 메인다 긔계를 돌리게한다 양을판다 그물을또게한다하며 교회긔관으로 말하면 매일밤이면 두시간식을 보통학교 정도의학과를 여섯과에난호와가르친다하며공일과 축일등은공부를아니하는날에는교회소(敎誨所)로일동을모아노코

어진사람 이되도다고여러가지말로 일러준다고한다 아ㅣ어머니와아버지의 사랑만을 알그어린죄수들이 인간의 명부인 감방에가치여가련한살림을하고 잇는것을생각하야볼때에 또는 그범죄의 거의전부가 굼주리고 헐버슴으로부터이러난것인것을 볼때에 뜻잇는사람은 엇더한감개가업지아니할것이다(개성)

平壤電車에 傷頻頻
운권수의부주의로 하로에경상자두명

지난십삼일 오후열시반경에 대동군림원면상오리김인수(大同郡林原面上五里金仁守)라는사람은 볼일이잇서 부내에드러왓다가 도라가는길에 긔림리로 진행하든 데륙호뎐차 운뎐수옥룡호(運轉手玉龍鎬)의부주의로 신창리부근(新倉里附近)에서치여서 김인수의두부에타박상(打撲傷)을 내이여 곳자혜의원(慈惠醫院)에입원치료중 이엇섯는데 궤도우에피흔적이 업서지기도전에 사월오전십일시경에 강긔수(康基洙)가운뎐하는데이호뎐차가긔림리종덤으로부터부내로진행하던중 아령리부근(衙令里附近)에서 중화군당정면송도리한경리(中和郡唐井面松島里韓景利)(六)라는 로인이또치여서 두부에중경상을 내이엿다는데 일반시민은 운권수의부주의를비난한다더라(평양)

日本人校長이 反宗敎者인가?
일백삼십명의녀생도다려 불교소녀회를탈퇴하라고
東萊第二普校長暴言

경남동래제이공립보통학교에서는 지난십사일에 교장서천씨(西川)가 해교녀생도로서 동래불교소녀회에 립회한 백삼십여명의생도를 교실에 불러세우고 『너희들은속히 불교소녀회로부터나오너라 만일래일아츰 까지에 입회원서를 도로바다오지 아니하면 퇴학을식인다』고 위협하며 그들을징계하노라고 공부도 안식이고 점심까지 굼것슴으로 어린학생들은 코다복권동 불교포교당에 몰려와서 그사실을말하며 울고불고하엿다는데 이에 분개한 불교측에서는 그날밤에 모모간부가 모여서 여러가지로 그대책을 강구하는중 이라하며 이사건을 알게된 일반사회에서 도교장의말이 너무과도 한것을 비난한다더라(동래)

『檢擧된十三名은 治維法違反이다』
원산청년검거사건에대한 元山警察署의發表

원산청년회위원(元山靑年會委員)열세사람은 원산경찰서에서 본월십일에 검거하엿다함은 이미본보에 게재한바와 갓거니와 그후 그자세한사실보도까지 당국은 이를절대금지하고 십오일에이르러 원산경찰서 자신이아래와가튼 문서를 작성하며 이를발표하엿더라

『彼等은京城에 根據를置한或種社會運動의系統者로서專히元山에에서種種의過激運動을하고잇는朴泰善의一派가되여昨年春頃부터여러가지思想團體를組織하고左傾的運動에暗中飛躍을하고잇섯슴으로當局에서도恒常注目하야오던바彼等이客年末에元山靑年會(中略)의宣言綱領을自己等主義運動에合致하지안는다하야一月六日元山靑年會委員會를開催하야(中略)綱領을制定하고共綱領에向하야積極的行動을取하려함으로實行爲에는곳社會의秩序를紊亂하는者로認하야元山署에서治安維持法犯으로同委員會에出席하야綱領制定에參與한委員左記十三名을檢擧한後家宅을搜索한結果他所에連絡하야不穩한事를畫策하려하든有力한證據品도發見하엿슴으로目下秘密裏에嚴重히取調中이다』

◇檢擧된十三名

元山靑年會 元山勞働靑年會 無產靑年同盟各執行委員 李宗敏(二四)

元山無産靑年執行委員長元山勞働靑年會員 金鍾國(三五)

元山靑年會執行委員 尹致赫(二六)

露國産元山勞働靑年會執行委員 金越星(一九)

元山勞働靑年會 元山印刷職工靑年同盟 元山靑年會各執行委員 李啓心(二六)

元山勞働靑年會 無産靑年會員 申溢培(二一)

元山勞働靑年會 成南靑年聯盟 元山靑年會各執行委員 朝鮮勞働總同盟中央執行委員 朴泰善(二九)

元山靑年會 元山勞働聯合會各執行委員 金相弼(二九)

元山靑年會 元山勞働靑年會 無産靑年會各執行委員 朝鮮靑年總同盟中央執行委員 韓明燦(二三)

元山靑年會執行委員 安鍾畯(二七)

元山靑年會執行委員 張基郁(二八)

元山靑年會 元山勞働靑年會各執行委員 李 鄕(二〇)

元山靑年會執行委員 李在睿(二五)

强盜를마젓다고 誣告하고拘留
구류십일을바든자

지난십삼일에 마산경찰서 사법실(馬山警察署司法室)에나희사십세외되는 촌사람이 자긔는강도를맛나 큰용을 당하얏다하고 구류십일을 언도바든 어리석은 자가잇섯는데 그자는 경남창원군진동면진동리 (昌原郡鎭東面鎭東洞)에 농업하는 홍성수 (洪聖守)(四)가 자긔친구 김순팔(金順八)에게 돈일원을 꾸어 탁주사십권어치를먹고 남은돈륙십권은 권긔홍성수 자긔커가에 가서써바리고 자긔집으로 오는길에친구를맛나또탁주를어더먹은것이취하야산언덕에서넘어저 발을다친것을조선사람두사람이 몽동이를들고다리를함부로때리며돈을내라고협박을함으로돈일원을주엇더니그만종적을감초아바렷다고 자긔의커에게까지 속여본내도록하고경찰서에무고하얏슴으로 그와가티 구류십일간의류치장손님이되얏다더라(마산)

河豚먹고 中毒死
사망한사람은 칠십사세로인

시내장사동(長沙洞)사십오번디리선명(李善明)의장인 윤석화(尹錫和)(七四)란로인은십오일오후세시경에 그사위의집 안방에서 복생선을 구어먹고고민하는것을 커녁여덟시경에 집안식구가 발견하고 의사를청하야응급수당을 베프럿스나 절국효험이업시 동열시반경에 드듸어사망하엿다더라(마산)

統營靑團復興
모든문데는해결

긔미운동(己未運動)이일어나든 그해팔월에 창립(創立)을 보게되야 이래수년을두고 활동사진대(活動寫眞隊)를우며 가진괴롬과 만흔박해를 무릅쓰고권조선을통하야 순회(巡回)를 두번이나하야서문화운동(文化運動)에 막대한 공헌이잇스며 디방(地方)에 잇서서도강습소(講習所)혹은야학(夜學)강연(講演)등으로 문화운동을힘으켜강습소(講習所)만키로는륙십여커경남데일위(慶南第一位)를점령한것도 우연이 아니엿섯다 그러든청년회(靑年會)가 수삼년전부터 유야무야의중에 파무처 회관건축(會館建築)을 하기위하야 대납(代納)한 림철규(林徹奎)는 긔부자(寄附者)로부터돈을밧지못하야 결국소송(訴訟)을 일으키게되얏스며 긔부자로 부터는돈이업다 혹은리유가 잇다 하야아직것 시비중에잇서 청년운동(靑年運動)에 끼쳐주는영향도적지안어오든바 이를 유감으로뎍인 멋멋유지 청년은 고심하여 오든결과 리철규씨로부터 다음의쾌락을 어덧다하며 곳통영청년단(統營靑年團)이 부흥되리라더라(통영)

一、소송(訴訟)은모다취하 (取下)하기로할일

二、곳총회(總會)를여러심사위원(審査委員)을정하야서출자인(出資人)의 재산정도(資産程度)를 됴사하야 적당한 출자를식히기로할일

三、출자금을바든후청년단유지비(維持費)로림철규자의로긔부하기로할일

四、령수되는돈의다소를물론하고채권(債權)은 포기하기로할일

松坡罹災民 救濟陳情
대표삼인이상경한다고

광주군중대면 송파리(廣州郡中垈面松坡里) 는지난홍수에권멸되엿다함은누차보도한바어니와 요사히 리재민들의 현상을보면 토굴생활로먹을것과입을것이업서 삽사일식먹지를못하고 사정업는 설상처위에 살이어려터져 견며지를 못하야 하날을부르지지며 통곡하는소리 사람으로는참아 드를수업고 볼수업는참혹한현상에잇는 천여명 리재민의운명이 경각에잇슴으로 이참혹한리재민을 구제키위하야 지난십삼일에 당디청년회와 본보송파지국 두단데에서 회의를열고 구제방침을 협의한결과 경성각사회단데에 이참혹한현상을 두단데에서 진정서를 보내기로하고대표삼인이 오는십팔일경성각사회와유지제씨를방문하고동정금을엇기위하야출발하기로하고동정대표삼인을 아래와가티 선거한후폐회하얏는데 각사회와 유지제씨는 만히동정하여주기를 바란다더라

◇上京委員 郭鼎天 姜允成 金東紹

姦通嫌疑로殴打致傷

함남삼호 신하리최재길(咸南三湖新荷里崔在吉)은 지난육십일월오일오후 륙시에 동면신성리엄래호(新成里嚴來鎬)를구혐이낭자하게 무수난타하야 지금생명이 위독하다는데 이제그내용을듯건대 피해자엄래호가 가해자 최재길의처 김성녀(金姓女)가어느날 물길러가는것을 긔회로하야 감언리설로 꾀여자긔집에다려다가 간통하엿다는 혐의로 그와가티 난타하얏는데피해자엄씨는 분함을 참지못하야경찰당국에 고소를 제긔하엿는대 이일에 대하야일반은 매우주목한다더라(삼호)

日人이自殺
원인은정신이상

함남홍원(洪原)군룡운(龍雲)정거장에서 근무하는역장의 아우수본수웅(樹本秀雄)이라는당년이십사세의 일인청년은 오래전부터신경쇠약으로 항상 자살하겟다고하더니지난십이일아츰에 권총을 면상에대이고 발가락으로당기여서 자살하엿다더라

斷髮하고僧이된 晋州妓生
정든님에게소박맛고 머리를베히고입산해

진주군동성동(晋州郡東城洞)에 거주하는 기생(妓生)양옥뎡(梁玉貞)은진주화류계에서다못문데거리로 눈ㅣ무슨사상이 잇는것처럼 세상이 슬슬하니 인생이 허무하니하야 일부청년들의 인긔를쉬은며 야유랑의말정거리가 되여오든바 금년봄에시내비봉동(市內飛鳳洞)에거주하는촌부자(村富者)조모(趙某)의 첩이되여 이래단잠을 니어오든바 조씨의집안에서 창기의첩두는것이 양반의집안의 수치라하야 절대로케지함으로 권긔양옥뎡에게 그리운님을밧하고 돌려보낸든바 양옥뎡은 그이튼날자긔머리를 비녀꼬진채로 잘라서 보에싸서 조씨에게보내고 자긔는 희망만흔세상을 표연히떠나 하동쌍계사(河東雙溪寺)로가서 류수흘오는봄에 흘려보내고 내세의소원이나바란다는데진주화류계에서는 자미잇는 한이야기거리가되여잇다더라(진주)

凍屍發見
동화령에서

함남삼수군관흥면동화령 (咸南三水郡館興面東和嶺)에서는 지난륙일에 삼림보호구 출장원이 령우에서 시톄를발견하고 삼수경찰서에 보고한바 경찰서에서는 현장에출장하야 시톄를검시하고 면사무소에 인도하얏다더라(북청)

◇集 會◇

◇現代少年俱樂部童話會 시내종로이뎡목에잇는현대소년구락부에서는십칠일(日曜)하오일곱시부터 경성도서관아동실(京城圖書館兒童室)에서동화회를개최하리라는데 립장은 무료이고 소년소녀에한하야립장식힌다하며연사는아래와갓다고

演士 李定第 張茂鉉氏

회파람

▲세상은날로변한다 ▲개성은상업상신용이만헛는거래를대개사환을식혀왓다 ▲그러나요사히는사환이주인돈을가지고줄행랑을잘한다 ▲사환에게 보증금바든날이 머지안타고 ▲전국남원군사매면 하신촌은 남원의관문이다 ▲따라서 경찰긔관 기타의 시설이적지안타 ▲그런데 부근여러곳 에서는행인이 도박군의등살에 잘살수가업다고 ▲등하불명 이라더니 경찰관 주재소가 너무나갓가워서그런지

◇訂正 지난大正十五年一月四日附一九〇二號本報第二面『愛弟의斷髮한美人』이란題下記事中『뎡수의형이 그동생의치료비를주지안흔다고 꼬처든때문을 빼어감추엇다』는 記事는事實無根이기이에訂正함

滿洲踏査(17)
李 涵

十一月十二日天氣가따뜻하다 우리는帽爾山老道溝에서 새벽에떠나서 南으로小嶺을넘어十里를行하야 嶺南屯에갓다이곳에同胞三戶가사는바 草創의生活이나그러케辛酸치는안흔모양이다여긔서朝飯을먹고다시떠나서鐵道를딸아 西으로二十里를行한즉 二道河子(얼도허즈)라는小站이잇다 站에서西北으로五里를간즉 同胞한집이잇는데 水田十晌을짓는바 土地가매우肥沃하고 周圍가五十里나되는圓形의野地에 西面으로보이는山은모다奇異한岩石이다 小川이南으로흐르는바 아무런大旱이라도水田 一百晌(二十八萬八千坪)은無慮히하리라한다午後四時에떠나山路로二十里를行하야三道街에도라와 金濫在氏를잠간만나고 初昏에十里를行하야帽兒山站에 잇는李春圃先生집으로갓다 春圃先生은十餘年前에鴨綠江을건너서 南滿洲方面에서同胞의前途를爲하야만히努力하다가 몃해前에寧古塔에가살다가 今年春에 此地에와서큰農場을벌리고實業에從事하는바 新春부터烏珠縣에設立하려하는公立學校를籌備하기에苦心하며 校監이되야設備에關한百務를總히籌劃한다고한다夕飯을먹고 밤十一時에떠나서海林으로가는 火車를타기爲하야자지안코 春圃先生과 가티여러가지滋味스러운 이약이를만히하엿다 밤十一時에春圃先生과 停車場에나와서 三元二十錢을주고 海林까지가는車票를사가지고 火車에몸을부치엿다 帽兒山附近에서誠捐金을蒐集한것이 一百二十餘元假量이라고 鄭潤氏는매우 깁버한다 十一月十三日天氣가亦是조앗다 午前十時에火車가 海林驛에到着하매 우리는車에서나리여徐康駿氏집으로가서 아츰밥을먹고 午後三時에徒步로써나서六十里를行하야 寧古塔으로도라왓다 이번길에 踏査한區域은 海林外에蒼沙 烏珠 國賓 方正 鐵嶺 帽兒山이鐵驪縣管轄地方과黑龍省의通河縣延壽縣이며그남어지全部를 寧安에갓다가다시써나서 돌아다니려하는바이다 同行한鄭潤氏는誠捐金을蒐集한것이 今番行에總額 一千餘元이다 가는곳마다熱烈한歡迎을 바드며激切한言論을하야 一般同胞들에게 非常한感動을주엇다 나도今番行에所得을말하자면 여긔저긔居散한同胞들을낫낫치차자서 따뜻한손을쥐고 반갑은말을서로한것과 그生活에困窶한 水田農作地와 收穫의分量을一一히안것과敎育을 하려하는 情況을詳細히본것이다 다시後에鄭潤氏와同作하야또떠나려한다

—謹賀新年—

慶北慶州本町 孫聖昊商店 電話二九番

支店 穀物 牛皮 官鹽 運送 肥料 慶東線慶州驛前 孫聖昊商店運送部

慶東線慶州驛前 紙 石油 金融 委託 販賣 運送業 崔富敏商店 電話二四番

慶州郡慶州面沙正里 白 ○

慶州邑第一商店 白塔準

慶州本町東興理髮館 主 愼 ○聖

慶州郡慶東 東部印刷所 電話八三番

慶州邑錦文洋行自轉車部 李 ○成

慶州面長 金性權

慶州郡慶州面東部里 閣面長 光成勝一 金 ○秀

慶州金融組合一同

慶州郡慶州面西部里 崔錦汀

慶州郡慶州面路東里 咸南鉦

慶州郡慶州面皇吾里 申 ○休

慶州本町金鶴理髮館 主 金 ○學

慶州郡慶州面路東里 李 ○佳 香

慶州郡內南面栗洞里 李鍾海

慶州醫院內 崔義鐘 電話二三番

慶州本町 大東印刷所

慶州大東醫院 崔宇煥 電話六四番

慶州郡守 朴光烈

株式會社 大邱銀行慶州支店

慶州邑內 李 ○文

慶州邑大邱精米所出張所 安基烈

慶州郡慶州面皇南里 ○ ○吉

慶州驛前 鄭漢表

慶州邑 壽斯醫院 金 ○鎬

慶州郡慶州面西部里 司法代書人 孫永照 金寬浩

慶州邑 布木商 李德潤

慶州邑自轉車店 主 金 ○長 ○建

慶州邑大五洋服店 主 成大五

慶州○○司法代書所 金振浩 金在鉉